

광양경제청, 즐거운 직장만들기 캠페인

직원에게 장미·간식 나눠주며 실천 다짐문 제창 소통·협업·동료 존중·청렴 생활화 등 다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지난 7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 상호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투자유치에 집중하기 위한 '즐거운 직장 만들기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투자유치1부 직원 10여 명이 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장미 한송이와 간식을 나눠줬으며, 직원들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인

'소통과 협업', '동료 존중', '효율적인 업무 수행', '일과 삶의 균형', '청렴 생활화', '신속한 민원 처리' 등 실천 다짐문을 제창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 기념품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의 장미꽃과 쌀로 만든 수박떡바를 직원들에게 선물하여 어려운 농가도 돕고 지친 직원들도 위로하는 일석이조의 행사를 치렀다.

김갑섭 청장은 "최근 전남에서



도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으니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직원들"에게 당부 하고, "청장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직원

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 소통함으로써 우리 청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 세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외지 청년 지역정착 지원 나선다

순천시, 이달부터 3달간 창업 특화 교육 진행

순천시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외지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순천 세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순천 세 달 살아보기'는 3개월간 청년들이 순천에 머물며 창업 교육을 받고 정착까지 유도하는 창업·정착 프로그램이다.

순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빈집,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재생건축과 도시재생지를 관광지로 활용하는 재생관광,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제조 3가지 분야로 팀을 나누어 정착에 필요한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선정한 전국 각지의 청년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7월 중 추기로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두달 교육 이후 한 달 동안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순천에서의 정착을 모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순천 세 달 살기 프로젝트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외지 청년들이 가진 새로운 시각이 합쳐져 순천의 새로운 매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순천에서 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청년 온라인 창업 아카데미' 진행

'온라인창업 무조건 살아남기' 과정...20일까지 선착순 15명

여수시는 최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 무조건 살아남기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온라인 쇼핑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온라인 시장 유통 이해, 아이템 선정, 쇼핑몰 기본정보 설정, 상품 코드관리, 최적화 판매전략 등 온라인 창업의 기초부터 실제 창업 후 상품 판매까지 전체 단계를 아우르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80시간이다.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며, 교육비 전액을 여수시가 부담한다.

참여자는 교육과 동시에 온라인 창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자 등록이 필수조건이므로, 반드시 온라인 창업을 목표로 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

신청서는 여수시청 또는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7월 20일까지 여수시청년일자리카페(중앙시장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yeosuyc@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인구 감소세 드디어 '멈춤'

고흥군이 처음으로 전월대비 인구 감소를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고흥군 인구는 64,336명으로 1개월 전인 5월 말 인구와 똑같이 처음으로 전월대비 인구감소 폭이 0명이 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사망인구가 84명, 타 시군으로 전출한 인구가 312명으로 총 396명이 감소된 반면에 출생인구 17명과 타 시군에

서 전입한 인구가 379명으로 늘어나 감소인구와 증가인구가 같아진 것이다.

민선7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64336명...전월 대비 인구감소 '제로' 최초 달성

민선7기 이후 2548명 늘어 '귀농1번지' 입증도

시점에서 송곡군 고흥군수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미래비전 1·3·0 플랜 중 고흥군의 인구정책 전략목표인 '2022

년까지 인구감소를 제로화'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귀농·귀촌·귀향 인구는 1,825가구 2,548명으로 1개월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곡군 군수는 "지속가능하고 젊은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청년 중심의 귀향·귀촌 지원과 함께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지역발전을 이룬다"고 말했다.

차지하면서 귀농 1번지로 입증되었다.

군은 민선7기 들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유턴, 아이행복, 귀향귀촌 3대전략 50개 시책을 담은 인구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유입 극대화 와 인구유출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곡군 군수는 "지속가능하고 젊은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청년 중심의 귀향·귀촌 지원과 함께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지역발전을 이룬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웅 기자

광양 농·특산물 꾸러미 '남도장터' 판매

농산물·삼겹살·건어물 등 세트로 각 4만 원에 판매

광양시는 광양 농·특산물 꾸러미와 가공제품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https://jnmall.kr)에서 선보이고 있다.

꾸러미 세트는 광양원예농협과 광양농협,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업체가 함께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식재료로 준비했다.

꾸러미 세트는 삼겹살과 쌀 채소로 구성된 '정성 꾸러미' △

전복, 수삼, 토종닭이 들어간 '몸보신 꾸러미' △미역, 멸치, 김 등으로 구성된 '건어물 실속 꾸러미' 세트로 각 4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친환경 유기농 쌀, 표고버섯 세트, 파프리카, 매실청 등 농·특산물 가공제품도 판매 중이다.

강금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남도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꾸러미 세트와 농·특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이달 말일까지 시행

보성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관내 대학생들의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 및 학비 마련 등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에 따른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는 관내 학생 157명이 참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기, 2기로 기간을 나눠 진행된다.

학생들은 군청 각 부서, 읍·면 및 △보성국민체육센터 △별교스포츠펀터 △태백산맥문학관 △방진관 △판소리성지 △백민미술관 △별교금요조합 등에 배치해 행정 및 현장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1기 참여자는 6월부터 17일까지, 2기 참여자는 20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하며, 선발된 대학생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6만 8,720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보성=김덕순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